

미국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무력은 “노코멘트”

유럽 8개국 그린란드 병력 파병…트럼프, 내달부터 관세부과
“그린란드 완전한 통제권 가지지 않으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

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난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든 노르웨이(정부)가 그것(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관련이 없

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은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결정될 뿐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을 배척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에 관심이 없다”며 자신의 평화 중재 노력으로 8개의 전쟁을 멈추게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 더 큰 보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요나스 가르스퇴

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평화가 항상 주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무엇이 좋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린란드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대통령 “BTS 콘서트는 역사적”

연방소비자원, 티켓 대행사 측에 예매 투명성 확보 강조

멕시코 대통령이 오는 5월로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며 K팝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BTS 관련 언급을 하면서 “(BTS가) 멕시코에서 콘서트를 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라며 “예나하면 이젠 멕시코 젊은 이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TS는 월드투어 스케줄 중 하나로 5

월 7일과 9~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6만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이 무대에 선 바 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BTS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설명한 뒤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소비정보보호원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

원(Profeco) 원장은 티켓 사전 판매 공식 시작 전이지만 공연장 좌석 배정을 놓고 BTS 팬들로부터 지난 며칠 동안 4천여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실제 멕시코 주요 소셜미디어에는 티켓 가격과 수수료, 공연장 구역 배치 등에 대해 명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글들이 쉽게 발견된다.

에스칼란테 원장은 “민원인들은 티켓 가격을 제때 공개하고,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며, 요금과 티켓 판매 조건을 완전히 명시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연방소비자원에 요청했다”라며 “여기에 더해 우리들은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BTS가 202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64회 그라미 어워드에 참석한 모습.

그는 티켓 판매 대행사 측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공식 팬클럽(ARMY·아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 수량을 비롯해 티켓 판매 과정별로

할당될 비율을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에서도 부산시가 6월 12~13일로 예정된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산 숙박업소 가격 최대 10배 폭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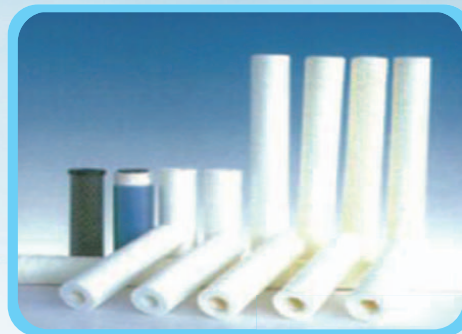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